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3월 13일 (제83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지우개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컴퓨터도, 핸드폰도 아닌 '지우개'라고 한다.

2000년이 되던 해에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 110명에게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한 명의 과학자는 '지우개'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의 말은 이렇다. "고무지우개, 거기에다 컴퓨터의 'del' 키와 '화이트', '헌법 수정 조항 등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이 최고의 발명품이다. 지우개는 우리의 참회소이자 용서하는 자이며 타임머신인 것이다."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고무 지우개로 지우고, 컴퓨터를 치다 잘못했으면 'del'키를 눌러 지운다. 볼펜으로 쓰다가 틀리면 화이트로 지우고, 잘못된 법이면 수정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지우개라 명칭된 것이다. 인간은 온전치 못해서 실수가 많고, 또한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터라 그것을 지워 고쳐야만 하기에 지우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지우개 중의 최고의 지우개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이 보혈이다. 우리의 주홍빛보다 더 진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은 지운다. 더럽고 추잡한 일도, 아름답지 못한 기억도 예수님의 보혈은 모두 다 지운다. 흔적조차도 없이 지운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이고, 그 보혈이 매일 우리를 의인으로 지탱하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한다(사1:18).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찬양하며, 그의 피를 오늘도 전하고 있다. "온 인류의 속죄의 보혈, 아~ 속죄의 보혈, 영원한 구원의 약속 오늘도 전하리라."

지난 8일 정음사랑예수중심교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예배가 있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정음사랑교회 담임인 이은실 전도사를 비롯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왜 가난하고, 왜 병들고 고통을 받는지 압니까? 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연결고리, 저주와 고통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배워야 합니다. 명마(名馬), 명견(名犬)이 됩니까? 서려면 서고, 달리려면 사력을 다하는 것이 명마요, 아무 때나 쫓지 않고, 아무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 명견입니다. 동물도 배우면 여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고로 배워야 합니다."



정음사랑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 (2016. 3. 8)

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지도급 인사들을 보세요. 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남다른 지식, 남다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꼭짓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에서 사과나무를 전지했습니다. 저는 사과나무 전지법을 몰라 박노영 장로에게 아랫마을에 가서 전지하는 법을 배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 장로에게 전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뒷사람인데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배워?' 하고 자존심을 세우면 절대 못 배웁니다. 모르는 게 창피한 거지 몰라서 배우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 허울 좋게 이유를 나열하지만, 한마디로, '게을러서' 못 배우는 겁니다.

모세나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 다 많이 배운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큰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배우십시오. 바울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3:14)고 했고, 전도자도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을 만들어주는 게 네가 할 일이다. 눈 역할을 할 사람, 발처럼 일할 사람, 머리로 일할 사람 등등 역할분담을 시켜라.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운 것처럼. 내가 교회를 자주 비우고 해외집회를 다녀도 서울교회나 인천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권한을 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물으니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란다. 또한 능력을 받기 원하니? 그렇다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는 말씀을 실천해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단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힘을 더하니'(잠24:5)라고 교훈했습니다. 주님도 공생애 동안 귀신을 쫓는 일과 더불어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마11:29). 배워야 알고, 아는 자만이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육에 지식을 함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은 이 전도사에게 목회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를 "이 전도사야,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앉히고 역할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란다.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내가 너와 다른 성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일생을 살았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다. 그러니 기도하는 전도사가 되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스승으로,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 그리고 선배 목회자로서 목사님은 하나하나 이 전도사에게 가르치셨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다. 오늘 배운 말씀이 정음사랑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큰 결실을 맺기 바란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정음사랑예수중심교회의 이은실 전도사



정음사랑예수중심교회의 전경



영상으로 중계한 부속실에서 기도하는 교역자 및 장로님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33:14~26)



# 의로운 자가 받는 계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슬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렁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욥33:14~18). 왜 하나님은 사람이 무시하고 무관히 여겨도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세상의 빛이 되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랑스런 자가 행어나 울무에 빠질까봐,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절세미인인 사 را를 취하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창20:3). 잠에서 깬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창20:4).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창20:6)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아비멜렉이기에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미리 재

## 답을 보고도 오답을 쓸 것인가

앙을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 아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1:20)고 말했습니다. 꿈을 꾸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 해산할 때까지 동침치 않았습니 다.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섬세하게 계시하셨을까요? 이유는 요셉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마1:19).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헤롯에게 가지 않은 것도 꿈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마2:12). 아기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니 얼마나 의로운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의로운 자들의 재앙을 막기 위해 계시하기도 하시지만, 의롭게 사는 자들의 장차 받을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계시하십니다(요16:13).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고 한 의로운 요셉, 그에게 하나님은 벉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과 해와 달이 자기에서 절하는 꿈을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 험난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됨으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의로웠던 술

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

는 구하라”(왕상3:5)고 물으십니다. 술로몬은 부귀나 명예나 장수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명예까지 더해 주셨습니다(왕상3:12~14). 하나님은 의로운 아브라함이 무자(無子)한 것을 보시고 그의 이상 중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함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이루게 하셨습니다(창15),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날 기쁨 속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의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창46:3).

제가 목회초기에 꾸던 꿈입니다. 제가 당시 교회의 거목이신 P목사님과 함께 웃도 걸치지 않고 잠을 자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대는 통에 모포를 덮어도 너무 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꾸던 꿈에서는 K목사님과 함께 잠을 자는데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단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깬 저는 참 망측한 꿈

도 있다 생각했지만,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결국 후자 목사님의 목회노선을 좇았습니다. 그 분처럼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이 한 목숨을 내건 저에게 하나님은 목회방향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 목회를 막 시작하고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무리했는지 제 몸은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70kg를 훨씬 넘던 몸무게가 56kg까지 빠져버렸으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공기 좋은 곳

으로 이사를 해서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



총회장 이초석 목사

침차산 근처 숲 속에 있는 별장식 주택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으로 1억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차를 운전해주던 집사님이 꿈을 꿔는데, 그 집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친동생도 꿈을 꿔다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더니 죽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24시간이 지났기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그 계약금이 아까워서 꿈을 무시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저를 꿈으로 이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용접봉을 내미니 시든 식물들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고, ‘명성’이란 두 글자를 주셔서 세계가 교구가 됨을 일찍이 알게 하셨습니다. 제 앞에 제자들이 많이 서 있는 꿈으로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설립될 것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이

는 흰 양복까지 입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저를 미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앞집의 라디오는 다 잘 나오는데, 옆집 텔레비전은 잘 나오는데 내 집 라디오와 텔레비전 화면이 지지직거리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전파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요

##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죄악과 벗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 받은 사울은 마침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삼상28:15). 하나님과의 안테나를 꺾어버린 사울에게 계시가 들릴 리 없습니다. 불의를 서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디 빌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의로웠던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일에서 손을 떼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이를 무시해서 세세토록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라’고 저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나를 진정 사랑하는 자가 꾸는 꿈이나 이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자제의 결혼에 대한 꿈을 꾸 적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은 잘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처를 안고 갈라섰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늘 의로운 삶,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삶,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로 세상 끝 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 수요예배

장소: KBS88체육관  
시간: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객원컬럼::

::오늘의 메세지::

## 나사 하나 때문에 웬 고생!

지난 1월, 갑자기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5도로 떨어진 주일이였다. 예배 준비를 위해 으름 새벽길을 나서는데 별안간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난감했다. 차를 붙잡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제야 시동이 걸렸다. 어휴...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봉사자가 운행을 위해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또 다시 말썽이 났다. ‘배터리가 문제’라고 해서 배터리를 교체했다. 그런데도 문제는 계속되었다. 얼마 후, 이리저리 살펴보면 와중에 원인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원인이란 것이 너무나 단순해서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 배터리를 연결하는 나사가 헐거워졌기 때문이었던다. 나사를 조이니가 언제 속을 썩었냐는 듯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었다. 순간 생각이 깊어졌다.

그렇다. 엔진이 제아무리 썩썩해도, 뽕뽕한 새 배터리를 장착했어도 연결 부위가 느슨하면 제대로 된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하나님과 헐거워진 관계는 곧바로 우리 영혼과 가정, 직장과 사업에 위기를 초래한다. 느슨한 기도생활, 그저 그런 신앙생활, 건성건성 직분생활을 통해서만 하늘로부터 온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 지금 당신은 어떠한가?

늦은 가을이 되면 양을 치던 목동은 직접 손으로 양들의 털을 깎는다. 늦가을 양털이 품질이 좋기도 해서지만, 털이 북슬북슬한 채로 겨울을 맞이하면 양들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다가 얼어 죽기도 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털을 깎는 중에 갑자기 추위가 몰아닥칠 때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일을 중단하고 양들을 축사에 몰아넣는다. 그러다가 추위가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작업을 한다. 그런데 이때 기묘한 일이 발생한다. 털을 아직 깎지 않은 양이나 아예 털을 다 깎아버린 양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털을 반쯤 깎다가 추위를 피해 들어간 양들만 하나같이 감기에 걸린다는 것이다.

뭐든 어중간한 상태가 문제다. 어중간하게 털을 깎은 양이 감기에 잘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중간한 사람이 더 시험에도 잘 든다. 우리 삶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위로부터 온전한 새 힘을 공급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헐거워진 관계, 어중간한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게 있다.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자. 색깔을 분명히 하자. 차든지 덩든지 확실하게 결단하고 움직이자!

신현명 목사

## 예배의 중요성

주일예배는 7일마다 찾아오는 평범한 날이 아니다.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제정해놓으신 아주 특별한 날로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주일, 즉 주님의 신령한 날이다(마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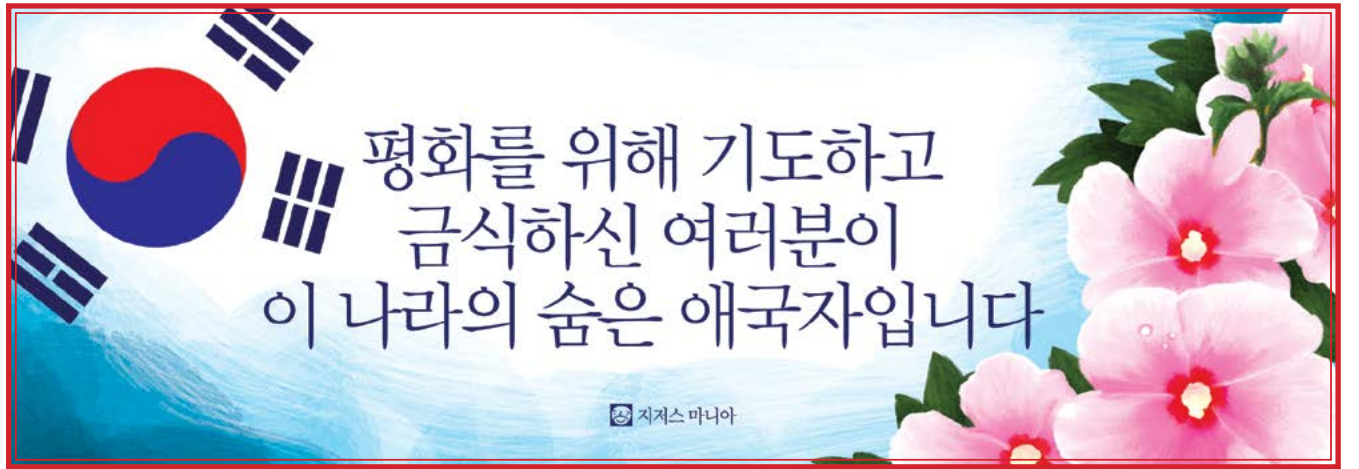
예배자로 삶을 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법제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다(삼하6:13~16).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함이었으며, 그는 왕으로서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예배자로 성전에 거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다(시84:10~11). 그는 이스라엘을 치리함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으며(시119:1~2),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시119:56).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대상29:28).

그런가 하면 예배를 멀리하다가 졸지에 망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

느하스 같은 사람도 있다(삼상2:17).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동시에 죽게 하셨으며 그 비보를 들은 아비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말씀한다(삼상4:11).

미국 오쿠우드 암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원종수박사의 간증이다.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가 2,500명인데 밀려드는 암환자로 인해 고민하다가 매일 새벽기도를 안 하면 500명의 환자를 더 돌볼 수 있을 것 같기에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새벽기도를 하면서 2,500명만 돌볼까요, 아니면 안하고 3,000명을 돌볼까요?” 며칠 후 새벽기도 시간에 “난 네가 좋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껏 새벽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인 암전문 박사로 명성을 더욱 높여주셨다. 그래서 우린 일생일대에 있어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이구원 목사



::성경에세이::

::교단소식::

## 과거가 좋았다고?

여보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과거가 좋았어, 옛날이 그래도 좋았어.”라는 말이 지. 그러나 과거가 좋다는 것은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것을 잊어서 그런 것 아닐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가? 미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꿀꿀이죽을 씹서 먹고, 미군이 지나가면 “기브 미 초콜렛”하며 구걸하지 않았는가? 화장실은 또 어떻고?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한 푸세식 화장실에서 눈도 못 뜨고 있었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요즘이 얼마나 좋은가? 전화기와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고, 전 지구가 하나의 촌이 되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의학도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사는 세상인데 얼마나 좋아. 그 옛날 왕이나 귀족이 이런 호사를 했을까? 예전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럴 게야.

여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출애굽을 했는데 도중에 조금 힘든 일을 만나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애굽에 살 때

가 나았어, 옛날이 좋았어.”라고 말했다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출16:3). 어떻게 종살이 하던 때가 좋으냐 이거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강제노역을 하던 그 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다니... 살기 힘들다고 일제강점기가 좋다고 한다면 말이 될까? 인간들이란 참~.

학개서에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그것이 예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에 비해 못하다고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다네. 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학2:3~9).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선물이라네.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현재만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을 귀히 여겨 최선을 다하고, 현재를 즐기며 감사하게! 과거에 사로잡히면 절대 미래가 박수를 치며 달려 올 수 없으니가.

朋友

## 2016년 JC아카데미 개강



지난 3월 4일, 기나긴 방학을 마치고 JC아카데미가 개강하였다. 이날 강의는 소선지서 오바다와 요나 강제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JC아카데미는 소선지서를 마치고 신약강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욥1:10).

오바다는 오바다서에 에돔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기록했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셨다. 그러나 에돔은 동생인 야곱(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앞에 그들은 도와주기는 커녕 패망에 적극 앞장서는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 많았도 있으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욥4:11).

또,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촉구하신다. 불순종한 요나의 통해서. 이에 60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은 굶은 배움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한다.

오바다의 에돔 족속과 요나의 니느웨 백성들은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다. 늘 말하지만, 죄가 문제가 아니다. 회개가 문제다. 에돔은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다. 그러나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셨다.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부패, 타락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은 회개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기도를 했고,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나의 신앙은 몇 학년?

3월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3월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몇 학년쯤 되었을지. 교회를 십 수 년 다녔지만 여전히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고 주일예배에 발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말과 행동과 삶이 180도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신앙이 더 성숙하나, 꼭 그렇지 않은 않지요. 신앙은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거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고, 쉽게 높은 인사고가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님에게 달라고만 하고 받기만 원하는 어린이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팔구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기도는 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그러던 기도가 어느 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전까진 저의 성공이 먼저, 그 다음이 하나님 영광이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기도가 스스로 변한 것이지요. 하나님 영광이 맨 앞, 저의 성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도구만 되도록. 제 신앙이 전보다 자

랐음을 피부로 느낀 첫 경험이었고, 제 삶의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서 주님으로 옮겨지던 계기였지요. 당시 제게 큰 좌절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 이겨보려 노력하고 기도하던 중에 생겨난 변화였지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꼭 고치리라 다짐하며 수첩에 적어 보지만 십 몇 년째 지우지 못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 덕이 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행동들, 뱀지 말아야지 하면서 뱀게 되는 상처 주는 말들, 무거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마음들... 회사에선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 크게 수고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 3월. 이 계절에 어떤 자기계발보다 먼저 신앙계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덮어두었던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한 달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면 일 년이 변화될 테니까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도록 오늘부터 노력해봅시다.

“그러컨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눈 건강에 좋은 국화차

동의보감에 눈은 ‘오장육부의 장기가 눈에 모여서 눈의 정기를 이룬다’라는 내용이 있듯이, 눈은 우리 온몸의 정기를 하나로 보여주는 마음의 창이고 눈을 통하여 오장육부의 건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스마트폰이나 LED TV와 같이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는 시대에는 눈이 금방 피로해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과로나 과음, 매운 음식 등을 많이 접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수면시간도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눈에 좋은 몇 가지 건강차를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명자차가 눈을 맑게 하는데 좋습니다. ‘결명’이란 눈을 맑게 해준다는 뜻이며, 간의 누적된 열을 낮추어 주어 눈병을 치료하고 눈의 침침함을 치료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구기자차가 충혈된 눈을 풀어줍니다. 구기자는 간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보약과도 같은 약초입니다. 결명자는 열이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나 구기자는 체질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평소 차처럼 오래 드셔도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기에 오랜 독서를 하시는 분들에

게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화차가 안구건조증에 좋습니다. 눈이 건조하거나 가려울 때 국화차를 복용하면 가려움을 줄여주고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에 안약만으로 도움이 부족할 때 국화차를 하루에 2잔씩 복용하면 차츰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분비가 감소되거나 잘 안 되는 것으로 눈이 뻑뻑하고 햇볕에 나가면 눈이 부시고 눈물이 나는 증상을 보입니다. 심해지면 눈이 충혈되고 따갑거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을 느낍니다. 주로 신경이 예민하거나, 콘택트렌즈의 장기 착용, 비타민A가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장시간 운전이나 오랜 시간 컴퓨터를 할 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국화차를 자주 음용하고,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시호청간탕(柴胡清肝湯)과 같은 처방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눈을 통해 행복한 주변을 볼 수 있는 소중한 한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8:36~37).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참된 깨달음::

# 나는 가리라!

2016년! 신년축복성회에서 “나는 이제 목회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됐다.”시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를 외치시는 우리 목사님, 고회를 바라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년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목사님의 선교사역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 ‘듣고 보고 만져본’(요일1:1)결과, 믿음이 전염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97년도에 신학생이 되어 첫날 경건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좌석이 학년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왼쪽부터 4학년, 3학년, 2학년, 그리고 맨 오른쪽이 1학년 좌석이었는데 웬지 4학년자리가 너무 멀고 크게만 느껴졌고, 그날 저는 ‘4학년 자리까지 잘 가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나의 목표는 4학년 자리다’라며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이를 악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다시 시작하는 30년’을 지켜보면서 ‘그 때 그 시절’ 1학년 때 다짐이 다시 생각나는 것은, 첫 마음을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처럼 저도 다시 시작하는 원년의 마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종 길에 발을 들였던 그 마음, 그 때의 마음을 다시 갖고 싶습니다. 전혀 변질이나 변색함이 없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2:4~5).

요즘 목사님의 애창곡이 되어버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를 목사님 따라 목청껏 불러봅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 Good News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IT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큰 발자취를 남긴 미국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건강 문제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췌장암 수술을 하고 간 이식까지 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5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병상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에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

지고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불빛과 웅웅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부귀영화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동성연애 합법화 반대!!

이름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욕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4~27절)